

일본의 공공 고용안정서비스 현황Ⅱ: 직업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일본

김기현 (동북대 박사후 연구원)

■ 머리말

공공 고용안정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용안정기관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릇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이러한 기관들에서 제공되고 있는 구인 및 구직정보, 직업정보 등의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은 그릇에 담긴 음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전자를 대표하는 것이 헬로우 워크(hello Work, ハローワーク)라면 후자를 대변하는 것이 직업핸드북(職業ハンドブック)과 이를 기반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 데이터베이스(職業データベース)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각각의 업무 필요상 혹은 서비스 제공상의 관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던 직업정보들을 공통화·공용화하는 직업정보시스템 J*NET (Japanese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松本真作 他, 2003).

한편,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에 미치는 직업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개인과 기업에게 필요한 직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적인 직업정보시스템 개발을 2000년부터 착수한 바 있다(금재호·김동우·김기현, 2001). 이와 관련하여 2004년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중앙고용정보원에서는 대표적인 직업정보시스템인 미국의 O*NET(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과 유사한 형태의 한국판 직업정보시스템인 한국직업정보시스템(Korean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 KNOW)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중앙공용정보원, 2004).

본 글에서는 일본의 공공 고용안정서비스 중에서 직업정보의 형태와 내용,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직업정보시스템 J*NET의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직업정보의 형태와 내용

현재 일본에서 공공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정보로는 직업핸드북이 있다. 일본노동연구 및 연수기구(JIL,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에서 발간되고 있는 직업핸드북은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형식인 직업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 : DOT)보다는 미국이나 국내의 직업전망서(Job Futures)에 가까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사전이 직무분석가의 전문적인 직무 내용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 수준별로 1만여 개에 이르는 직무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는 대신 직업전망서는 300여 개 이내의 대표적인 직업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차이를 보여준다. 일본에서도 미국의 직업사전 DOT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성직업안정국(労働省職業安定局)에서 1953년에 직업사전(職業辞典)을 발간한 바 있으나 이후 발간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직업핸드북이 대표적인 직업정보로 자리잡아 왔다.

가장 최근 발간된 직업핸드북은 1997년판이며, 이 내용은 직업핸드북 CD-ROM 버전으로 1998년에 재발간되었고 1999년 이후 직업데이터베이스로 작성되어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직업핸드북은 각 산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300개 직업에 대한 해설과 사진 등을 담고 있다. 이 정보는 학

[그림 1] 직업핸드북에 기반한 직업데이터베이스 초기 화면



자료: <http://db.jil.go.jp/welcome>

교를 졸업해 취직하려는 구직자는 물론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고령자나 재취직을 희망하는 여성 등 연령이나 경험이 다른 취업 희망자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직업데이터베이스에는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직업선택 가이드'나 직업전망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직업세계의 미래'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하고 있다. 직업핸드북에서 담고 있는 직업정보는 ① 직업 개요, ② 해당 직업 종사자의 특징, ③ 자격 요건 및 취업경로, ④ 고용현황 및 직업전망, ⑤ 노동조건(수입,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⑥ 관련 단체 및 문의처 등이다.

[그림 1]은 현재 인터넷으로 서비스 중인 직업데이터베이스의 초기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데이터베이스의 검색방법은 직업명 등을 입력하는 키워드 방식과 산업분류, 직업분류 등 분류선택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한편, 직업핸드북과는 별도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핸드북 OHBY(Occupation Handbook for Youth)가 2002년에 CD-ROM 형태로 발간되었다(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4: 2~3). 이 역시 JIL에서 1999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발간한 것으로 PC 화면상에서 자유롭게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흥미나 적성 등의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997년판

[그림 2] JOB JOB WORLD 초기 화면



자료: <http://www.shigotokan.ehdo.go.jp/jjw/top.html>

직업핸드북보다 많은 430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HBY는 직업핸드북이 기본적으로 성인이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등학생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개발이 추진되었다. OHPY에서는 학교나 상담 기관 등의 관계자와 협력해 중고생 스스로가 쉽게 직업을 탐색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사진, 영상 등의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특별히 JOB TOWN 탐험은 지역을 도심, 상업지, 주택지 등 9개로 구분하고 그곳에 입지해 있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보는 건물이나 점포로부터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이나 체험을 상기하면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직업핸드북 이외에 대표적인 직업정보로는 고용능력개발기구(雇用·能力開發機構)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JOB JOB WORLD’가 있다(雇用·能力開發機構, 2004: 6). [그림 2]는 JOB JOB WORLD의 초기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JOB JOB WORLD는 OHBY와 유사하게 청년층의 직업선택과 경력개발을 위해 약 7백여 개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동 기관이 운영중인 「와타시노 시고토칸(私のしごと館)」의 직업정보 부스의 컴퓨터실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JOB JOB WORLD의 특징은 청소년들의 흥미나 관심 분야로부터 직업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알고 싶은 직업이 정해진 사람은 물론 알고 싶은 직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도 ‘물건’, ‘관심’, ‘장소’, ‘생활’이라는 범주별로 직업을 찾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물건’ 범주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의복, 인테리어, 책 및 CD, 영화·무대·TV·라디오, 주택·건축물, 컴퓨터·가전, 음식물, 도로·교각, 교통수단·통신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 중에서 구직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선택해 직업을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

각각의 직업정보에는 ‘나니카나(なにかな) 정보’, ‘나루호도(なるほど) 정보’, ‘나루니와(なるには) 정보’ 등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니카나 정보’에서는 직장, 일의 성과, 일의 내용, 일의 역할과 목적 등을 실제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개하고 있다. ‘나루호도 정보’는 실제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인터뷰하여 소개하고 있다. 인터뷰는 초보자, 중견, 베테랑 등 세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일에 종사하게 된 계기와 실패담, 기뻐던 일과 힘들었던 일 등 여러 가지 체험담이 소개된다. ‘나루니와 정보’에서는 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당 직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직업의 취업자수, 임금 및 노동시간, 해당 산업 및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다.

■ 일본 직업정보시스템 J*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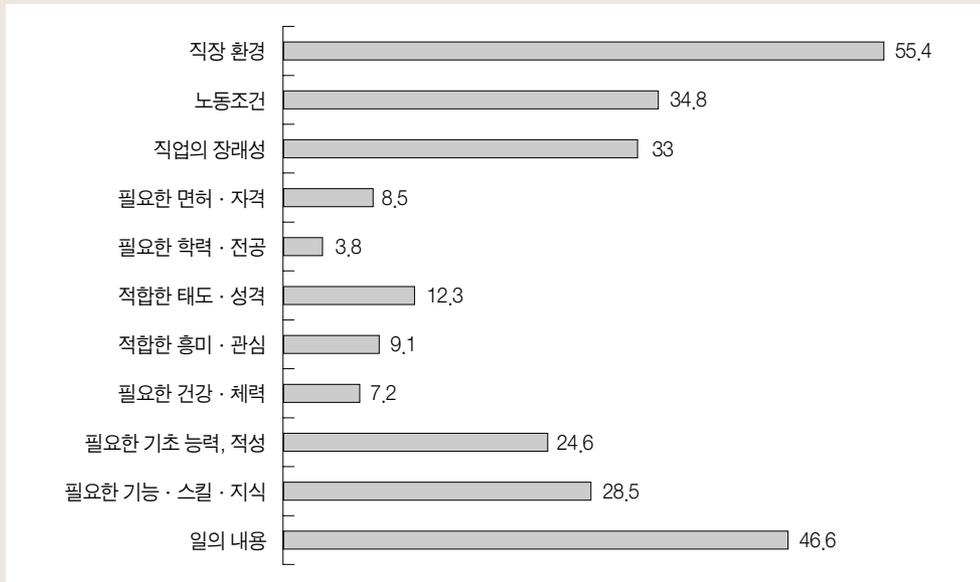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최근 직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JIL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松本眞作 他, 2003)를 토대로 J*NET의 개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직업정보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직업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직업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와 공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미국의 O*NET 개발 과정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직무 중심의 정보보다는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작업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개발 중인 J*NET은 미국의 O*NET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O*NET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정보뿐만 아니라 취직 및 전직을 위한 미국의 종합안내 사이트인 CareerInforNet(<http://www.acinet.org/acinet/>)의 기능도 동시에 갖는 프로젝트라는 할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J*NET은 ① 학생 및 젊은이를 위한 시스템, ② 사회인을 위한 시스템, ③ 다면적인 직업탐색시스템 등 세 가지 부분의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첫 번째 시스템은 주로 학생이나 젊은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직업정보 외에 직업흥미 검색, 직업 선택시 중요한 사항 등이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시스템은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까지 일해 왔던 직업을 입력하면 현재까지 수행한 직업 경험의 장점을 살려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직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 시스템은 수많은 직업 중 특정 직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직업탐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J*NET의 개발은 후생노동성의 '관민직업정보검토위원회(官民職業情報検討委員会)'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 위원회는 학자, 행정관계자, 민간관계자 등 17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위원회 외에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시스템 개발, 정보 수집에 관한 기획, 개발업체 선정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근 8명과 비상근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직업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1) 본 정보와 관련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일본노동연구·연수기구의 마즈모토 신사쿠(松本眞作) 주임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림 3] 구직자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보



자료: 松本真作 他, 2003.

2000년 9월부터 구성된 관민직업정보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공공 직업안정기관, 민간 직업소개소, 구인정보잡지 사업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기업 등 직업정보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청취조사를 9월과 10월 두 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이어서 동 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구직자 8,440명과 구인기업 4,000개 업체 그리고 민간 노동력수급 조정기관 31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별로 필요로 하는 직업정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그림 3]은 구직자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직업 관련 정보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동 위원회는 2000년 12월까지 외국의 직업정보시스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1년 3월에 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어서 일본 직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JIL 주도로 이루어져 연구보고서가 2003년에 발간되었으며, 2004년에는 미국 O*NET의 번역실험판이 구축되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05년 최종 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헬로우 워크에서 J*NET이 시범적으

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2006년도에 헬로우 워크에서의 시범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J*NET이 일반에 완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지만 향후 J*NET은 헬로우 워크 직원이나 카운셀러 및 직업전문가를 위한 시스템도 추가될 예정이다. **KL**

참고문헌

- 금재호 · 김동우 · 김기현, (2001). 『외국의 직업정보시스템-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중앙고용정보원, (2004).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개발보고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松本真作 他, (2003). 『人材の最適配置のための新たな職業の基盤情報システムに関する研究』. 調査研究報告書 No.151. 日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日本労働研究機構 編. (1997). 『職業ハンドブック』. 日本労働研究機構.
- 日本労働研究機構 編. (1998). 『職業ハンドブック CD-ROM』. 日本労働研究機構.
- 日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編. (2002). 『職業ハンドブックOHBY(中高生版)』. 日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 日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4). 「インターネットでの新たな基盤情報の提供-総合的職業情報データベースの開発-」. 『職業安定広報』5/21号, 社団法人雇用問題研究会.
- 日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4). 「若年者向けガイダンスツール-OHBY・職業ハンドブック-」. 『職業安定広報』5/21号, 社団法人雇用問題研究会.
- 雇用・能力開発機構. (2004). 「JOB JOB WORLDについて」. 『職業安定広報』5/21号, 社団法人雇用問題研究会.